

“추석 차례상 비용 낮춰라” 대형마트, 초저가 경쟁

이마트, 포도·갈비·주류·가전 '다채' 롯데마트, '물가 안정 시금치' 선봬 홈플러스, 25일까지 'AI 가격 혁명'

대형마트들이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고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물가안정'에 나서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고객들의 풍요로운 명절 연휴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한가위 쇼핑 대축제'를 선보인다.

올해 이른 추석과 포도 막바지 시즌이 겹쳐 가능했던 '추석 포도 축제'를 연다.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샤인머스켓(2.2kg/박스)'를 5000원 할인한 2만4900원에 판매한다. 사전 기획을 통해 작년 추석보다 20%가량 가격을 낮췄다.

또 거봉(1.4kg, 3kg 2종류), 캠벨포도(1.5kg, 3kg 2종류), 머루포도 3kg 등 다양한 국산 포도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00원 할인하며, 미국산 포도 전 품목 역시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5% 할인 판매한다.

연휴에 빠질 수 없는 가족 먹거리도 준비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참다랑어회(대, 350g 내외)를 4만2800원에 판매하며, 미국산·호주산 냉동 LA갈비 1.5kg(팩)을 각각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00원 할인한다.



대형마트들이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물가안정'에 나서고 있다. 롯데마트 제공

이마트 델리 베스트셀러 '양장피(대)'와 신상품 '뉴 순살 양념 닭강정', '먹오세트' 등 안주거리 역시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한다. 양장피, 뉴 순살닭강정, 먹오세트와 카스후레쉬 464ml*8캔 혹은 한맥 464ml*8캔을 동시 구매 시 20%를 추가 할인 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26일까지 이어지는 효도 가전 행사도 진행한다. 세라젬·바디프랜드·코지마·제스파·브람스 안마의자를 행사 카드로 전

액 결제 시 최대 10% 할인하며,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상세 내용은 점내 고지물을 참조하면 된다.

약 80여종에 달하는 반값 행사도 준비했다. 주요 상품으로 냉동 돈까스 전 품목, 냉동 피자 전 품목, 수입 감자칩 전 품목, 물티슈 전 품목, 피실·테크·리큐·피지·비트 세탁세제, 아우라·피준·르샤트라 섬유유연제 등 필수 생활용품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판매한다.

이외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대형

가전을 행사 카드로 전액 결제 시 최대 30만원을 할인함과 동시에 최대 80만원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롯데마트는 추석을 맞이해 오는 15일 시세 대비 40% 저렴한 '물가안정 시금치'를 한정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지난 6일 포천 산지에서 수확한 5000단의 신선한 시금치 원물을 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 기술을 통해 저장해, 명절 준비로 시금치 수요가 높은 15일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물가안정 시금치는 롯데마트 광주수완점에서 200단 한정으로 1봉당 6990원이라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18일까지 간편 PB 제수용품 행사도 진행한다.

'요리하다 캐송편 2종'을 엘포인트(L.POINT) 회원 대상으로 1000원 할인해 각 5990원에 판매한다. 또 구이에 적합한 꽃갈비 부위를 8mm 두께로 정형해 식감과 육즙을 살린 '요리하다 LA식 꽃갈비(600g)'를 2000원 할인한 1만5900원에, 국내산 돼지고기와 깻잎으로 만든 '요리하다 깻잎전(300g)'도 1000원 할인한 6990원에 판매한다. '요리하다 동태전(300g)'과 '요리하다 남도떡갈비(375g)'는 각 5990원에, 2개 묶음으로 제작된 '요리하다 오징어해물완자(400g

*2)'와 '요리하다 동그랑땡(425g*2)'은 각 7990원에 균일가로 판매한다.

홈플러스 역시 추석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상품을 최저가에 선보이는 'AI 가격 혁명' 등 다채로운 할인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25일까지 'CJ무항생제 1등급 깨끗한 계란(25구)'은 12~18일까지 7890원에 판매하고 '올해 처음 수확한 고희 햅쌀(10kg)'은 2만9900원, '14brix 제스프리 골드키위(7~10입)'는 7490원, '팬이버섯(4입·1인2봉 한정)'은 1790원에 마련했다.

18일까지는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고기 유니버스' 행사를 진행하고, 다양한 육류를 최대 50% 할인가로 제공한다. '농협안심한우 전품목', '미국산 초이스 냉장 짬뽕비'는 각각 최대 40% 할인한다. '농협안심한우 육전용(300g)', '양념 소한입LA갈비구이'는 30% 할인을 제공한다.

'추석 물가안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종 명절 먹거리 상품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CJ·풀무원 두부 9종'은 2090원부터 1+1 혜택을 제공하며, '당면 11종'은 최대 50% 할인, '전류 8종'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10% 할인가에 제공한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신세계가 아메리칸 스포츠 브랜드 '윌슨'과 골프코어룩 대표 브랜드 '살로몬'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윌슨·살로몬' 호남 최초 오픈

스포츠·골프코어룩 브랜드

광주신세계는 신관 지하 1층에 스포츠 브랜드 '윌슨'과 '살로몬'을 호남 최초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1914년 미국 시카고에서 탄생한 윌슨은 세계 주요 리그에서 사용되는 농구공과 테니스공 등 공식 게임볼을 만들며 그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윌슨은 110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며 의류에서도 자신들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다.

윌슨의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제품으로는 여성 임팩트 폴집 자켓(23만9000원)이 있다. 가볍고 신축성이 우수한 소재를 활용해 일상에서는 물론 테니스 경기 등 다양한 활동 시에도 착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신세계 윌슨은 호남 최초로 오픈한 것을 기념해 테니스 라켓을 구매한 고객

들에게 줄을 조절하는 스트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관 지하 1층에 13일 오픈하는 '살로몬' 역시 스포츠 용품에서 출발해 다양한 품목으로 확장한 브랜드로 꼽힌다. 지난 1947년 프랑스 알프스에서 스키용품 생산하며 탄생한 살로몬은 현재는 테크니컬 의류와 프리미엄 풋웨어 등을 생산해 더 나은 경험을 고객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트레킹화 XT-6가 인기를 얻으며 온·오프라인에서 품질 사태를 빚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존 제품에 방수 기능을 더한 XT-6 GTX를 출시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정일 광주신세계신관팀장은 "윌슨과 살로몬 등 인기 브랜드들의 호남 첫 매장을 광주신세계에서 선보일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광주신세계는 고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규 브랜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광주지역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11.8% '전국 2위'

안도걸 "고물가·저성장·내수침체"

지난해 광주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11.8%로 전국에서 인천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이 12일 국회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개로 전년(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



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업태별로 보면,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이 국세청이 분류한 14개 업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은 전년도(2022년) 129만개 개인사업자 중 27만개가 문을 닫아 20.8%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음식업은 79만개 중 15만개가 문을 닫아 폐업률은 19.4%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관계없이 고물가·저성장·내수침체의 3중고가 전국의 모든 자영업에 경

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12.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광주(11.8%), 울산(11.7%), 대전(11.6%) 등의 순으로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이 많은 지방 광역시의 자영업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안도걸 의원은 "소매업과 음식업, 간이사업자 등 대표적인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지금 밑바닥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침체의 3중고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렵다"면서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소진공,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점 강화

현장제도 활동·모니터링 실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최근 특별한인 판매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려되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현장 제도 및 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에서는 추석을 맞이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지류 10%, 디지털형 15%)을 실시했다. 많은 고객이 한층 저렴한 추석상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특별할인을 악용한 부정유통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소진공은 관련 대응반을 구성하고 상인회 등과 연계해 부정유통 방지 현장제도 활동, 모니터링 실시 및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한 엄정한 제재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금용거래망시스템(FDS)를 활용해 유통과정에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전국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방지 가두캠페인을 진행해 올바른 유통을 적극 계도한다.

한편 광주호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그리고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는 지난 11일 전통시장 상인회와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부정유통 근절 활동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도입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상품권이 꾸준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보와 디지털상품권 가입 확대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경제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다운 기자